

언포탈출 언신등극 가이드

학문적 독해 Academic Literacy 에 도달하기 위한
읽기이해 Reading comprehension 지도서

저자 소개

안어린왕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에서 언어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세부 전공은 읽기이해(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상장기업 근무 중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해 제한되는 직장 내 소통 불편에 관심이 생겨 비판적 사고를 공부하고자 대학원을 병행하면서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시, 외시 1차 시험인 PSAT의 언어논리, 상황판단 과목의 문제 출제 및 교재 집필을 했으며

메가스터디에서 로스쿨 입학 시험인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 영역과 의치학교 육입문검사의 언어추론의 교재 집필, 모의문제 출제, 강사 발굴 업무를 했습니다.

입시학원에서 언어/논술 강사를 했습니다.

현재 학생을 가르치고 지문을 이해하는 인지과정을 관찰하고 올바른 학습법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차 1인 인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로부터 읽기와 관련된 연구용 샘플을 수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argumentee>

시작하기 전에

미국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을 위한 연구¹⁾에서 제안한 중-고등학생의 읽기 학습의 중요 요소는 아래와 같다. ☞는 수험생이 더 유의해야 할 것을 필자가 제안한 것이다. 본 자료는 아래의 1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읽기 전략을 가르치려 한다.

1. 이해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할 지침(읽기 전략)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 어린 시절에는 독서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읽기 전략을 습득해 나가도록 기대하였으나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분명한 지침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와 모국어를 익힌 아이가 청소년기에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외국어 습득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를 생각해 보면 왜 직접적인 설명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

☞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음식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 대표로 먹은 다음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읽는 방법을 경험하도록 읽기이해 지침을 설명해야 한다.

2. 효과적인 지침의 원리는 글의 내용영역에 담아서 전달한다.

- 글과 글을 이해하는 원리를 떼어놓지 않는다는 의미. 일반적으로 읽기 수업은 글에 집중하여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설명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글 내용과 함께 글을 이해하는 원리/지침을 가르쳐줘야 한다. 예를 들면 과학기술에 관한 글 읽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때 어떤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그 정보를 잘 알려주는 한편, 그런 과학기술에 관한 글을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에 관해 가르쳐야 한다.

☞ 수능 초창기에 언어과목의 키가 배경지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폐기된 관점이지만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배경지식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국어 학습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타 과목에서 읽기이해 전략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사회, 과학, 역사 시간에 어떻게 이해하고 사

1) Reading next, a vision for action and research in middle and high school literacy, Catherine E. Snow,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4

고해야 하는가는 가르치지 않는다)

3. 동기유발과 자기주도 학습화에 힘써야 한다.

- 성장하면서 학습 동기와 의지가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 자존감,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이 강하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행하게 된다. 그런 학생은 미래의 꿈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독서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고 자신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는 학생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더 알고자 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 자기주도학습을 요구받을 때 더욱 활발하게 탐구할 수 있다. 읽기나 체험, 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행위가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받게 되면 더 위축되고 반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기유발에 힘쓰고 학습 동기와 의지에 맞게 학습 방식, 과제, 분량, 주제 등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 성적이 낮은 학생의 문제는 자기주도적이지 못한 학습 방식에 있다. 좋은 방법을 찾기에 너무 힘쓰고 꾸준한 노력이나 자신에게 맞도록 적용하는 노력 없이 스스로의 노력을 의심하고 불안해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학습을 축적하기 전에 포기하거나 방법을 바꾸곤 한다.

4. 학습할 글과 관련하여 참여 학생들 사이 협력적인 형태의 수업을 한다.

- 독서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질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유능한 지도가 중요하다. 모든 질문은 학생이 갖춰야 할 능력, 지식을 염두에 두고 이를 생각해 보고 탐구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인강, 대단위 강의(50명 이상 강의)등의 한계가 명확하다. 학생-강사의 소통이 불가능해서 수동적인 학습을 조장한다. 학생들 사이의 협력은 공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형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교육에서는 학생과 강사의 협력적 수업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절실하며,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일단 극히 일부분이라도 support를 받으려 하는 학생이라면 협력적으로 활발하게 강사와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학생은 일방적인 수업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학생의 필요사항에 따라 전략적으로 학습 형태를 결정한다.

- 4에서 공동 수업을 제안했으나 어떤 학생의 경우 1:1 수업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어떤 학생은 읽기 전략에 좀 더 치중해야 하는 반면, 기반 지식을 축

적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 4와 동.

6. 2와 관련하여 다양한 글을 도구로 삼아야 한다.

- 글의 종류에 따라 읽는 방식은 다르고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다루는 글들을 통해 학습한다. 이때 글의 수준은 학생이 힘겨워할 수 있는 정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글은 큰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이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시중에서 문제 풀이 방식이나 지문 독해 원리를 가르칠 때 그 방식에 맞는 지문을 예로 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러나 글을 읽고 이해하는 전략은 기본적인 동일한 원리와 내용영역에 따라 다른 원리가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글에도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원리와 특정 내용영역 지문 읽기 유의사항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7. 쓰기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 읽기 능력과 무관하게 쓰기 능력 역시 필요하다. 또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은 쓰는 것 역시 잘 하지 못한다. 부모님과 심도있는 대화나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한 경우 읽는 것은 못하나 사고력이 발달되어 쓰기는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쓰기능력이 부족하다. 쓰기 학습은 읽기 능력에 도움이 된다.

☞ 국어수업에 국한시킨다면, 수업 중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8. 특정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도구(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속독, 의미단위 끊어읽기 등 읽기를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있다. 이러한 학습도구들은 이해의 전반적인 과정에 모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 의해 글 이해 능력을 필요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향상은 그런 훈련과 더불어 다른 학습과 함께 얻은 성과이다) 하지만 학생에 따라 일부 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였을 때 개선되는 정도가 클 수 있다(특정 능력의 부실함으로 다른 고차원적인 능력의 실행이 방해받고 있는 경우)

☞ 스피드책 등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9. 지속적인 평가

- 매일 학습의 평가 그리고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가 없이는 어떤 학습 활동도 무의미하다. 시험을 보고 성적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고자 한 부분에 대해 면밀한 기록과 평가가 지속되어야 한다.

☞ 국어도 마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모의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읽기이해 세부 전략 실행 능력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어야 효과적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글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어떻게 향상시켜 나아가야 할지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도록 권한다.

-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자신의 어떤 읽기이해 방식이 미흡한지 관찰한다.
-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방법을 책에서 찾고 구상하고 계획하라.

유의사항

인지심리학 지식에 근거하여 독해 과정을 설명하고 독해 능력 향상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급히 올리기 위해 지문 독해에 적용하는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혹 가르치는 분이 이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학생에게 활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를 배제하여 일상적인 단어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학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차례

1. 글이란 무엇인가?

- 1) 글은 단어의 조합이다.
- 2) 글은 단어와 문법으로 의미를 담는다.
- 3) 글은 주제를 말하려고 한다.
- 4) 글에는 구조가 있다.

2. 독해란 무엇인가?

- 1) 상황모델이란?
- 2) 상황모델의 구성
- 3) 추론이란?
 - 가. 대용어 참조 추론(anaphora reference inference)
 - 나. 교량 추론(bridging inference)
 - 다. 상위목표 추론(Superordinate goal inference)
 - 라. 인과원인 추론
- 4) 글 읽기이해 전략

1. 글이란 무엇인가?

글(text)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문장이 집합한 것이다.

글을 이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연습하기 위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같은 글에 속한 문장들은 서로를 의지한다.

저자는 한 문장을 쓸 때 이전의 문장을 염두고 두고 쓴다.

저자는 독자가 글을 알기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기 원한다.

글은 문자로 쓰여 있으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문자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단어가 모여 문장을 구성하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단어의 의미를 능숙하게 회상하는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단어는 문법의 규칙 하에 다양한 문장을 구성하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문법의 의미를 능숙하게 회상하는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문장과 문장은 서로의 의미를 명확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므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추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는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정신적인 활동이 병렬적, 동시적, 즉각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이 있어야 발전한다.

1) 글은 단어의 조합이다.

문자는 모여서 가장 작은 의미단위인 단어를 표시할 수 있다. 단어는 개념과 연결된다. 새, 책상, 하늘, 사랑 등 단어는 우리가 새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²⁾ 하지만 한 단어는 하나의 의미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가 글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아는 것, 서로 다른 단어가 가진 미세한 의미의 차이(뉘앙스nuance), 사용방식의 차이를 아는 것도 글을 이해하는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조합하여 문장을 이룬다. 문장은 생각(idea)을 포함한 가장 작은 단위이다. 문장을 어떤 단어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단어만으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문법이 결정한다.

2) 여기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 대해 아는 분들은 지시(reference), 지시체(referent) 등을 구분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 하겠으나 이 책은 학술적인 엄밀성을 추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적인 언어로 이해하기 바란다.

2) 글은 단어와 문법으로 의미를 담는다.

문법이란 문장에 의미를 담는 단어의 조합 규칙이다.³⁾ 문법 규칙 안에서 어떻게 단어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담을 수 있다. 단어라는 벽들을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집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진다. 황토벽돌, 적벽돌, 회색벽돌 등 벽돌만이 집의 모양을 결정하지는 않는 것처럼 단어만이 문장이나 글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곰돌이 푸(Pooh), 꿀, 벌, 좋아한다, 싫어한다⁴⁾

위의 단어들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매우 다양하다.

**벌은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를 싫어한다
곰돌이 푸는 꿀을 싫어하는 벌을 좋아한다**

각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더라도 어떤 의미의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는 문법이 결정한다. 하지만 문장을 읽을 때 단어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문장이나 글을 읽을 때 문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음 예를 보자.

가. 곰돌이 푸는 벌의 노란색과 같은 색이다. 물론 벌은 검은 가로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벌은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를 싫어한다.

문법의 도움을 받아 위 문장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나. 곰돌이 푸의 몸은 노란색이다. 벌에도 노란색이 있다. 벌은 푸와 달리 검은 가로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푸의 노란색과 많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푸와 벌은 둘 다 노란색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같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은 꿀을 좋아하는 푸를 싫어한다.⁵⁾

3) 문법은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규칙을 제공한다. 이 규칙에 따라 조사, 어미변화를 한다. 문법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은 조사나 어미에 주의를 기울여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4) 1926년에 발표된 A. A. 밀론의 동화에 나온 주인공으로 꿀을 무척 좋아하는 주인공 곰이다. 디즈니(Disney)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다.

5) 뒤에서 추론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가>를 읽고 <나>와 같이 이해하려면 <가>에서 ‘곰돌이 푸’, ‘별’, ‘노란색’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러나’와 같은 단어를 잘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물론’을 지원한 ‘있기는’에서 ‘~기는’이라든가 ‘하지만’의 ‘~지만’등도 유의해야 한다. 조사와 연결어미 등의 문법적 표지에 충분히 유의하면 위 글은 이 별과 푸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이 푸를 싫어한다는 점을 의아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가>를 읽으면 마치 글에 적혀 있듯이 몇 가지 생각이 따라 나온다. ‘별과 푸가 노란색이다-그러나 별이 푸를 싫어한다’는 것은 ‘같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은 푸를 싫어한다’고 읽게 된다. 여기서 ‘유사한 점이 있다면 좋아할 것이다’는 저자의 생각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별이 푸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는 푸 역시 별처럼 꿀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목을 끌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에 주의를 끌도록 문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푸가 꿀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별이 싫어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⁶⁾ 하지만 글에서 별이 꿀을 좋아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건 별이 꿀을 필요로 한다는 독자의 지식에서 왔다. 별은 기본적으로 꿀을 좋아하므로 별과 푸가 모두 꿀을 좋아해서 서로는 경쟁이 되고 그래서 별이 푸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문법은 독자의 생각을 유도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매우 간단한 예를 통해 문법이 어떻게 글의 의미를 전달하는지 살펴보았다. 책 중반 이후에서 설명적 글에서 문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6) 별이 꿀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인 반면 별과 푸가 둘 다 노란색이라서 별이 푸를 좋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조금 의외의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

3) 글은 주제를 말하려고 한다.

ㄱ. 개념

글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애써 손목을 움직여 쓴 글이니 당연히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담으려 탄생한 글의 핵심을 주제라고 한다.

주 제 :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압축한 글의 중심, 핵심⁷⁾

주제문 : 글 또는 단락이 전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한 문장

화 제 : 글이 주로 다루고 있는 특정한 소재

문학 또는 비문학 글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생활과 활동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말한다.

주제≠주제문 / 주제≠화제

주제는 글의 일부인 어떤 한 문장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제문을 지적한 것으로는 주제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없다.(이것은 주제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말할 때 알 수 있다) 주제문이란 글에서 주제를 가장 많이 반영한 문장일 뿐이다. 따라서 주제문을 지목하는 것은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일종의 중재적 활동일 뿐이다.

화제는 글이 주로 다루고 있는 소재이다. 다른 말로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제는 글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어떠하다’고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제는 글이 다루고 있는 바이며, 주제는 글이 다루고 있는 화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주제 = <화제> + 화제에 관한 <설명>

7) 여기서 주제는 theme이나 topic보다는 중심생각main idea의 개념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중심생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옳으나 문학작품의 경우 전달하려는 바를 중심생각이라는 용어로 지시할 수 없다. 또한 조금 생소하기도 하다. ‘주제’로써 문학과 비문학에 동일하게 글이 전달하는 바를 지칭하기 위해 비문학에서 중심생각이라는 개념에 주제라는 용어를 썼었다.

만약 주제를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화제를 주어로 하며 화제에 관한 설명을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 될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주제를 말하려 쓴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글을 읽는 것은 곧 주제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들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완벽하지 못하다.

다음 두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의 주제를 이해했는가?”, “주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글을 잘못 읽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글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표면적으로는 글을 잘 읽은듯하지만 실제로는 주제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거나 완벽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먼저 주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언제나 그 과정에 따라 글을 처리해 나가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해서 올바른 주제 파악 과정에 따라 글을 읽는 능력을 숙달시켜야 한다.

★ 주제의 신비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화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것이다. 독자가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글과 무관한 불필요한 지식까지 연관시키거나 글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독자는 너무 많은 것에 주위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나서도 읽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의를 기울여 이해해야 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그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게 된다.

주제는 글을 전부 읽고 난 후에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동안 단계적으로 파악해 나가는 것이다. 주제의 범위를 정확히 잡아 나아가면서 글을 읽으면 실제로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효과가 있다. 마음속에 되새겨진 내용은 기억에 깊이 새겨지고 세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주제와 연결됨으로써 독자가 글 전체를 뚜렷이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된다.

나. 예

다음 글은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 화제가 무엇인가?

무엇에 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 화제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반려동물 사육세대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작은 관심만 가져도 가능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 이웃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의 취미나 생활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취미나 생활 방식이 이웃에 불편이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세대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로써 이웃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견 이동시 반드시 배설물을 담을 수 있는 봉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승강기 내부에서도 반려견의 배설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민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반려동물이 배설하는 행위는 어린이들 위생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울음으로 인해 이웃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휴가 기간에 반려동물을 방치해 둘 경우 주변 이웃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반려동물의 목욕시 세대 내 세탁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배란다를 이용하여 목욕을 시킬 경우 타 세대로 악취가 전달되거나 털로 인하여 배수구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위 글에 대한 아래 질문에 답해 보자.

1. 반려동물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2.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3. 반려동물 사육이 다른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4. 반려동물 사육이 다른 세대에 불편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답1. 아니다.

위 글에는 반려동물이 이러저러하다는 내용이 있는가? 그렇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려동물에 관해 위 글에 나온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로 고양이가 좋다”, “개가 좋다”거나 “반려동물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반려’동물인가?” 등등도 모두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위 글에 없다. 따라서 ‘반려동물’에 관한 특정 내용만 위 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글이 반려동물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위 글이 포함하지 않은 것까지 말하게 된다.

답2. 아니다

답3. 그렇다

답1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글은 반려동물에 관한 것에서 반려동물이 다른 세대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답4. 그렇다

그리고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세대가 취해야 할 행동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추가된 내용이다. 반려동물이 다른 세대에 불편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유로 두고 따라서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하여 양육하여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이웃에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하게 유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은 다른 세대를 배려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은 목적성을 갖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주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세대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들’

위의 문장에서 핵심은 ‘유의사항’이다. 문장 안에는 유의사항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와 있으며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면 세대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유의사항은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ㄷ. 중요성

주제가 무엇인지 주제의 개념을 아는 것은 글을 정확히 읽는 첫 걸음이다. 주제를 파악하는 숙련된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때마다 주제를 파악하려는 의지와 성향이 필요하다. 매번 글 읽기가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이 되게 해 주고 주제 파악 능력을 발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주제를 구성해나갈 때 주제의 특성을 갖고 있도록 하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의 특성

① 주제의 일관성

주제는 글 전체에 일관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글의 부분 부분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늘 주제를 말하고 있다. 비록 문장들 또는 단락들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주제를 말하기 위해 내용 전개상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앞에서 ‘글’이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은 문장들이 모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주제에 관해 말한다.

② 주제의 포괄성

주제는 글 전체를 포괄한다. 포괄이란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넣음’을 말한다. 위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주제는 글의 모든 내용을 끌어안으면서도 내용 밖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

③ 주제의 응집성

글의 모든 부분은 주제를 향해 응집한다. 주제가 글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므로 글 전체의 부분 부분은 모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제와 연결되고 주제를 향해 내용이 ‘모이는’ 것을 응집성이라고 한다.

* 글에 따라 일관성, 응집성이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좋은 글이란 일관적이고 응집성이 강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쁜 글은 아니다. 그런 글에서도 주제를 파악할 만한 능력을 가져야 하겠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에서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다.

○ 활용 연습

1. 다음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한 다음 완결된 문장으로 적어본다.
2. 자신이 적어 놓은 주제와 글의 주제를 비교하여 주제의 세 가지 특성을 만족하는지 점검한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되었다. 사장 겸 주필은 서재필이 맡았다. 독립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여 국민 계몽의 목적을 쉽게 실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독립신문에서는 논설을 1면 첫머리에 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성 분야 등 조선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시의 조선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독립신문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역설한 것은 조선 백성들의 ‘조선병(朝鮮病)’ 치유였다. 이러한 조선병으로는 굶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에 대한 맹목적 믿음, 허례허식, 지식인들의 수구적 태도 등을 언급하였다. 그중에서도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조선병은 바로 ‘불평하는 태도’와 남에게 의존하여 살려는 마음이었다. 이는 “조선은 전국 인민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남의 일같이 보고 도무지 상관들을 아니 하여 다만 불평하는 소리들만 하고 다닌다.”라거나, “먹고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즉 그 사람이 어찌 자주 독립할 마음이 있으리오.”라는 논설의 대목에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국정 개혁을 촉구하는 것도 독립신문의 주된 논조였다. 독립신문에서는 외국에 나라를 파는 역적,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관리,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파는 관리, 백성에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 재물만 늘리는 부패 관리의 문제가 국정 개혁을 통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조선병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다룬 논설에서는, 관리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돈을 뺏는 일이라며 비판하였다. 또 세금을 바치라고 시장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하게 매를 친 제주 목사의 예를 들며, 관리들의 이와 같은 횡포는 백성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부 비판적 논조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당시의 수구파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비행이 신문에 폭로되어 입장이 난처해지자 독립신문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와 합작하여 서재필 추방 공작을 진행하였다. 그 후 독립신문은 윤치호 등에 의해 계속 발행되다가 대한 제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1899년 12월 4일자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주 제 : _____

아래는 잘못된 주제 파악의 예이다.

◇ 독립신문에 관한 글이다.

- 독립신문은 글의 화제에 불과하다. 화제에 관해 어떤 설명을 하였는가?

◇ 독립신문의 역할

- ‘독립신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범위는 적절한) 화제가 되지만 ‘독립신문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나’를 요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제에 관한 설명이 없다.

◇ 독립신문이 국민을 계몽하고 사회를 비판하였다

- 나쁘지 않으나 글의 내용과 좀 더 밀착할 필요가 있다.

◆ 독립신문은 국민의 부정적 태도와 위정자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으나 결국 폐간되었다.

주제 파악의 구체적 방법은 2. 독해란 무엇인가의 3)추론이란?에서 다룬다. 추론에 관한 설명 가운데 대용어 추론, 주제 추론에서 화제의 범위를 적절히 파악하고 주제를 구성하는 구체적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

4) 글에는 구조가 있다.

삶과 세계에 관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삶이나 세계 속의 어떤 것이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글 역시 단순하지 않다. 앞의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주민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전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이 이웃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로써 요청의 당위성을 얻으려 하고 있다. 글을 읽는 주민이 요청 사항을 받아들여 도록 하기 위해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유를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제가 이유-결론, 원인-결과, 문제-해결방안, 구성 요소들에 관한 설명, 대립적인 견해 등등 그 속에 구조를 갖게 된다. 주제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글 전체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글과 글의 주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반려동물 사육세대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 작은 관심만 가져도 가능한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 이웃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의 취미나 생활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취미나 생활 방식이 이웃에 불편이나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세대에서 각별한 관심과 주의로써 이웃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도록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 사육이 이웃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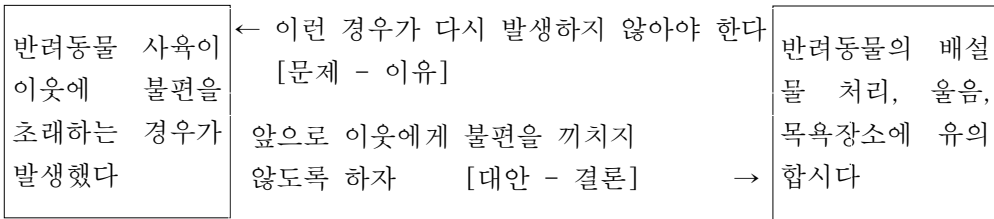
반려견 이동시 반드시 배설물을 담을 수 있는 봉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승강기 내부에서도 반려견의 배설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민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반려동물이 배설하는 행위는 어린이들 위생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울음으로 인해 이웃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휴가 기간에 반려동물을 방치해 둘 경우 주변 이웃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반려동물의 목욕시 세대 내 세탁실이나 화장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베란다를 이용하여 목욕을 시킬 경우 타 세대로 악취가 전달되거나 털로 인하여 배수구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울음, 목욕장소에 유의하여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자.

위 글은 붉은색 문장과 같이 두 부분으로 요약된다. 요약된 부분들은 서로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



두 부분은 문제-대안(이유-결론)의 관계에 있다. 글의 구조는 요약했을 때 생략해서는 안되는 주요 내용들이 서로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미 앞에서 본 대로 주제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드러나 있다.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세대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

<1.글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글에 관해 설명하였다. <2.독해란 무엇인가?>에서는 글보다 글을 읽는 독자의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2장이 본론이다.

2. 독해란 무엇인가?

글이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제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글에는 주제가 있고, 주제나 글은 모두 구조를 갖고 있다. 글에 구조가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 저자가 글을 쓸 때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왜냐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사안에 대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등의 다양한 설명이거나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거나 처리할 문제를 위해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검토한 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가 있는 글이 저자가 쓴 그대로 독자의 마음에 똑같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글을 읽었을지라도 독자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구조를 가진 글을 제대로 읽는 것을 글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해의 과정은 글이 가진 주제, 구조를 독자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때 독자의 마음에는 하나의 상이 그려지는데 이것을 상황모델(situation model)이라고 한다.⁸⁾ 다시 말해서 글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상황모델을 잘 그린 것(앞으로는 ‘구성한다;construct’고 할 것이다)이라고 할 수 있다.

8) 글을 읽으면 마음속에 응집성 있는 명제가 표상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국어교육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글을 읽으면 언어에 담긴 정보가 독자가 가진 세상 지식과 연결되어 마음속에 상황모델(situation model) 또는 심성모델(mental representation)을 구성한다고 말해 오고 있다. 조금 더 알고자 한다면 존슨 레어드(Johnson-Laird)의 심성모델에 관해 찾아볼 수 있다.

상황모델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글의 내용과 구성을 파악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보다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침을 설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상황모델의 진가는 실제 글 이해에 적용하는 후반부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1) 상황모델이란?

ㄱ. 개념

쉽게 말해서 상황모델이란 어떤 장소에 가는 길을 전화로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려진 지도와 유사하다.

아래 네 사람의 위치를 마음속에 그려보자.

1. 명수는 재석 뒤에 있다
2. 명수는 홍철의 왼쪽에 있다
3. 형돈은 홍철의 오른쪽에 있다

독자가 위의 문장들을 하나씩 일어가면서 네 사람의 위치를 점차적으로 마음속에 구성하는 상이 상황모델이다. 1~3은 독자가 네 사람이 공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관한 상황모델을 그리도록 유도한다.

실제 글 읽기에서는 앞으로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몇 사람의 주장을 다루는 글을 만날 수도 있다. 이론상 관점이 다른 학설 사이의 관계나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도가 다른 제품들의 위상을 나타내는 글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글을 요약할 때 위의 예와 유사한 상황모델을 그릴 수 있다. 글의 상황모델은 이외에도 사건의 선-후, 원인-결과 등의 구조를 갖기도 한다.

ㄴ. 예

다음 글⁹⁾을 읽고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역사가들의 역사 서술 태도의 차이를 위 문장 1~3처럼 상황모델로 그릴 수 있는가?

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쿠르티우스 중에서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 아리아노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도 상

9)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시행 국어 A형

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만큼 그에 대해 호의적이
 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영웅으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묘사를 조금씩 삽입하여 반감을 약간씩 내비친다. 한편 쿠르티우스
 는 알렉산드로스의 천품은 좋으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자만과 포악이
 겸양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세 작가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중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그리스 출신이다. 그
 러나 전자는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던 반면, 후자는 고향에서 신관으로 일했
 기에 정치와는 무관했다. 그들은 모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그리스 연합군
 을 이끌고, 과거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면을 중시하였다. 그
 러나 플루타르코스가 태어난 지역이 과거 마케도니아에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
 당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평가에 내재하는 반감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쿠르티우스는 로마의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었다. 그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아리아노스와 대조적인 평가를 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쿠르티우스
 가 활동한 1세기는 로마 제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황제는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화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공화정을 주도했던 원로원이
 유명무실해져 가는 상황에서 쿠르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세기가 더 지나 아리아노
 스가 활동할 때가 되면 제정은 확립되었고, 그는 속주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이라
 도 지배자에 대해 충성의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가 쓴 작품은 결국 황제에게 바
 치는 충성의 맹세였던 것이다.

그리스·마케도니아 연합군으로 페르시아 정복
 공화정 가장

알렉산드로스	:	호의적	VS	반감	VS	포악하다
		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쿠르티우스
신분		로마제국 고위직 (제정 확립)		로마제국 신관 (정치와 무관)		로마 원로원 의원 (공화정 주도)
출신		그리스		그리스 마케도니아에 반기 과거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공		로마 귀족

위 글은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쿠르디우스 세 사람의 역사적 서술 태도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모델은 각 사람의 역사적 서술 태도를 차례대로 기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태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얼마나 근접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외의 내용은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이유를 설명한다.

ㄷ. 중요성

글은 문장을 나열하여 내용을 설명하지만 내용 사이의 관계를 재구성하면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면에 배치한 것과 같이 세 역사가가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각각의 태도와 그 이유, 그리고 세 사람 사이의 차이를 한 번에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일목요연한 표와 같이 정리된 것이 상황모델이다. 그러나 상황모델과 같이 내용간 관계를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하여 정리하지 못하면 필요할 때 신속하게 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회상하거나 세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회상하지 못한다.

2) 상황모델의 구성

앞의 1~3 문장은 읽기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위 문장을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1. 재석은 명수 앞에 있다. (1에 의해서)

2-1. 홍철의 왼쪽에는 명수가, 오른쪽에는 형돈이 있다. (2, 3을 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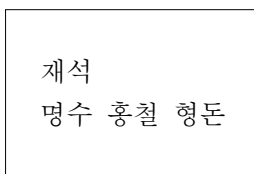
사람에 따라 위와 같이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한 후에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네 명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 1~3으로부터 바로 위치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1~3으로부터 1-1이나 2-1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네 사람의 위치에 관한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

1-2. 재석은 명수 바로 앞에 있는데, 명수는 홍철, 형돈과 같이 횡으로 서 있다.

2-2. 명수로부터 홍철을 건너 오른쪽에는 형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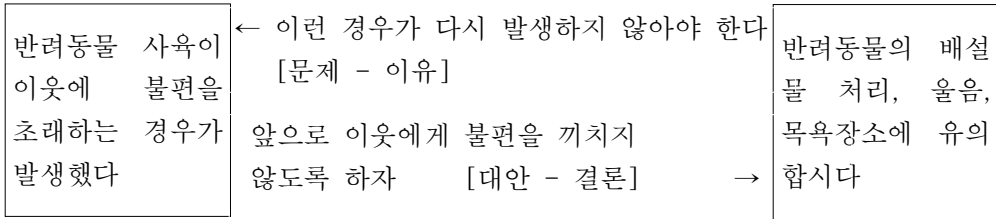
2-3. 형돈으로부터 홍철을 건너 왼쪽에는 명수가 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 담긴 정보는 1~3 문장의 것과 관련이 있다. 1~3 문장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장들 안에 함축(implication)되어 있던 것이다. 문장 1~3을 읽으면서 1-1, 2-1과 1-2, 2-2, 2-3의 정보가 마음에 떠오르면 이것들이 문장 1~3과 얽여 마음속에 네 사람의 위치에 대한 상황모델을 구성한다. 1~3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문장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몇 정보를 떠올리고 나머지는 아래 그림과 같은 배치를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상황모델을 읽은 후에 위와 같은 정보를 도출하기도 한다.



1~3과 1-1, 2-1은 같은 내용이지만 명시적으로 또는 문자 그대로 쓰인 내용은 같지 않다. 추론이란 명시적으로 쓰인 내용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바로 1~3에서 1-1, 2-1를 얻는 과정이 바로 추론이다.

앞에서 글의 주제와 구조를 도식화한 것은 바로 상황모델을 시각화한 것이다.



주제 :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세대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

다음 글¹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종류의 근 섬유를 특성의 차이에 따라 배열하듯 정리해 보자. 근섬유별로 동일한 근섬유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고 다른 근섬유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구분함으로써 잘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상황모델의 예-네 사람의 위치 파악하기와 어떻게 유사한지 생각해 보라.

어떤 학생이 가볍게 걷다가 빠르게 뛰겠다고 하자. 여기에는 어떤 운동생리학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까? 운동을 수행할 때 근육에서 발휘되는 힘, 즉 근수축력은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학생이 뛰는 속도를 높이게 되면, 다리 근육의 근수축력은 그에 따라 증가한다.

다리 근육을 포함한 골격근*은 수많은 근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근섬유들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되는데, 이때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의해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부른다. 운동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는 크게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구분된다. 지근섬유는 근육 내 산소 저장과 운반에 관여하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고 있어 적근섬유라고 부르며, 상대적으로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띠는 속근섬유는 백근섬유라고 한다. 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지근섬유는 하나의 운동 신경에 10~180개 정도가 연결되고, 속근섬유는 300~800개 정도가 연결된다.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가 많을수록 근육의 수축력은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속근섬유로 구성된 운동단위가 훨씬 강한 수축력을 발생시킨다.

한편 근섬유들은 종류에 따라 수축력, 수축 속도,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속근섬유는 세부적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다시 a형과 b형으

10)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교육과정평가원.

로 나뉜다. b형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에 비해 빨리 피로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신속하고 폭발적인 수축력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a형 속근섬유는 지근섬유와 b형 속근섬유의 중간 속성을 가지고 있어 지근섬유보다 수축 속도가 빠르며, 동시에 b형 속근섬유보다 높은 피로 저항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육의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반면에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운동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때 근육의 수축력도 이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 중의 하나가 크기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운동을 할 때 운동 단위는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저강도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작은 크기의 운동 단위를 가지는 지근섬유가 동원된다. 이후 운동 강도가 증가되면 더 큰 운동 단위를 가지는 속근섬유의 운동 단위가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따라서 저강도의 '걷기'에서는 대퇴근의 다리 근력에 지근섬유가 동원되고, 중강도의 '달리기'에서는 지근섬유에 a형 속근섬유가 추가적으로 동원된다. 또한 고강도의 '전력 질주'에서는 지근섬유와 a형 속근섬유에 b형 속근섬유가 추가적으로 활성화된다.

* 골격근 : 중추 신경의 지배에 따라 골격을 움직이는 근육

* 근섬유 :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수축성을 가진 섬유상 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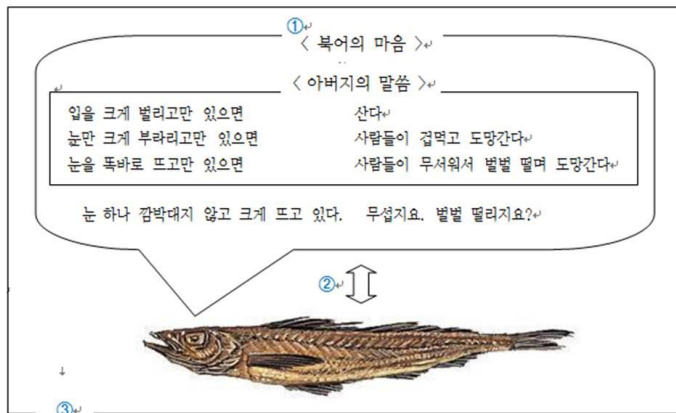
★ 참고 : 시의 상황모델

시 해석에서는 시적 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적 상황은 시를 서술하는 이, 곧 화자가 말하는 상황을 말한다. 시는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의 한 장르로 보기 때문에 시적 상황은 정서를 대변하는 대상과 대상의 상태, 성질, 관계 등이 작품 안에 묘사된 것으로 본다. 시인이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 정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통용된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시인과 독자가 공감하기 위한 도구적 언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모델은 시적 상황과는 다르다.

북어

배우식

사람한테 잡혀가도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으면 산다고 아버지한테 귀 닳도록 들었습니다. 사람한테 잡혀가도 눈만 크게 부라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아버지한테 귀빠지게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 하나 깜박대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내가 무섭지요. 벌벌 떨리지요?



한심함, 가엾음, 우스움의 정서가 환기된 이유는 **현실에서는** 북어의 믿음과 행동 (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독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②)은 사람들이 북어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있지만 북어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점에서 웃음이 나온다.

그런데 북어가 이렇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독

자에게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시인이 북어의 발화를 서술하면서 이와 함께 현실(위기의 북어(O), 북어는 말할 수 없다(X))을 선별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독자는 이에 따라서 마음속에 상황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생이 배우는 국어에서 보통 ①를 시적 상황이라고 배운다. 반면 상황 모델이란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는 심리적 표상**이므로, 이 시로부터 얻는 상황 모델은 ③(=①+ ②)이다.

이렇게 ②를 ①과 마음속에 나란히 놓은 ③을 바라보면서 북어를 한심해하고, 가여워하고, 우스워하는 반응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상황모델을 보면서 시를 벗어나 현실의 무엇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된다.

3) 추론이란?¹¹⁾

추론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 무엇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추론은 독자가 글에 명시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떠올리는 과정이다. 새롭게 떠올리는 정보는 사실은 독자가 이미 갖고 있는 배경지식(domain knowledge) 또는 세상사 지식(world knowledge)으로부터 나온다. 추론은 상황모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서 글을 이해하는 주요 과정이다. 따라서 추론 능력이 글 이해 능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설명한 추론들을 글 읽기에서 능숙하게 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정교한 상황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추론에 관한 설명을 접해보면 자신은 이미 잘 하고 있거나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설명한 만큼의 깊이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를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글의 난이도나 제재의 생소함 또는 선호도에 따라 활발하게 추론을 하여 글을 능숙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 구체적인 문제는 바로 추론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의 네 가지 중요한 추론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추론은 여기 설명한 것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며 실제 독해에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11) 인지심리학의 제 문제 II. 글 이해와 추론과정 : 추론의 유형과 특성, 조혜자·이재호

가. 대용어 참조 추론(anaphora reference inference)

ㄱ. 개념

대용어(anaphora)란 한 문장에서 **이전에 나온 표현을 반복하는 단어**를 말한다. 대용어처럼 이전에 나온 단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개념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대용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용어와 연관된 이전에 나온 표현이나 개념을 참조어라고 한다. 마음속에서 참조어와 대용어를 연결하는 참조 추론이라고 한다. 대용어 참조 추론으로써 서로 다른 문장에서 같은 대상에 대한 언급을 결합하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을 응집성 있는 하나의 상황 모델로 통합하게 된다. 대용어 참조 추론 능력은 주제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ㄴ. 예

굵은 글씨는 대용어이며 밑줄 친 부분은 대용어로 인해 통합되는 내용이다.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에 창간되었다. (독립신문의) 사장 겸 주필은 서재필이 맡았다. 독립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여 국민 계몽의 목적을 쉽게 실현하고자 하였다...

...독립신문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역설한 것은 조선 백성들의 ‘**조선병(朝鮮病)**’ 치유였다...그중에서도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조선병**은 바로 ‘불평하는 태도’와 ‘남에게 의존하여 살려는 마음’이었다. **이는** “조선은 전국 인민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남의 일같이 보고 도무지 상관들을 아니 하여 다만 불평하는 소리들만 하고 다닌다.”라거나, “먹고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은즉 그 사람이 어찌 자주 독립할 마음이 있으리오.”라는 논설의 대목에 잘 드러나 있다.

*굵은 글씨 ‘이는’은 대명사로서 ‘조선병-불평하는 태도, 남에게 의존하여 살려는 마음’의 대용어이다.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에서는 대용어가 위 글 첫 단락에 나온 것처럼 동어반복 또는 대명사일 경우뿐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 개념어가 맥락 속에서 대용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표현이 이전의 단어를 ‘대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래 첫 단락의 굵은 글씨를 다음 단락에서 ‘비행’으로 받아내고 있다.

...관리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돈을 뺏는 일**이라며 비판하였다. 또 **세금을 바치라고 시장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하게 매를 친 제주 목사**의 예를 들며...

당시의 수구파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비행**이 신문에 폭로되어 독립신문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와 합작하여 서재필 추방 공작을 진행하였다.

ㄷ. 대용어에 의한 상황모델 구성

대용어 참조 추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이 참조어와 대용어 관계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참조어와 대용어가 연결됨으로써 어떤 설명들이 결합하는가이다. 문장에서 서술어 자리에 있던 서로 다른 설명이 참조어-대용어에 의해 결합하면 각 서술어가 설명하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상황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1.

① **2극 진공관**은 진공 상태의 유리관과 그 속에 들어 있는 **필라멘트**와 **금속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진공관 내부의**¹²⁾ **필라멘트**는 고온으로 가열되면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③ 이때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 주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④ 이렇게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을 **정류**라 한다.

위 지문에서 독자는 참조어-대용어를 활용하여 진공관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에 대한 상황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①에서 2극 진공관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정보를 얻음으로써 2극 진공관의 구성에 관한 아래와 같이 첫 상황모델을 만든다.

2극 진공관 = 진공 유리관[필라멘트 & 금속판]¹³⁾

②에서는 이미 ①에서 말한 바 있는 ‘진공관 내부의 필라멘트’에 관해 말하기

12) 밑줄 친 부분은 참조어-대용어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동일한 상태를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필라멘트가 진공관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진공관 안에서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통합하는 데 용이하게 해 준다.

13) 이때 필라멘트가 전구 속에서 빛을 내는 가는 금속선이라는 지식이 있거나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나 경험을 반영해서 상황모델을 만든다.

시작한다. ②의 진공관과 필라멘트가 ①의 진공관, 필라멘트의 대응어이기 때문에 ①로부터 구성해 상황모델을 떠올리고 거기에 ②와 ③이 말하는 추가 정보를 덧붙여 새로운 상황모델을 만든다. ③에서 (-)인 전자가 (+)인 금속판에 달라붙는다는 지식이 도움을 준다. 이렇게 전류의 흐름에 관한 상황모델이 구성된다. 그리고 ④를 통해서 여기에 ‘정류’라는 이름을 붙인다.

만약 필라멘트, 진공, 전압 등이 생소한 사람이라면 글에 문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만을 종합해서 상황모델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대응어 참조 추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생소한 영역에 관한 글이라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상황모델을 구성하여 글을 이해할 수 있다.

2.

앞에서 이전의 개념을 대신하는 표현으로 대응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돈을 뺏는 일이라며 비판하였다. 또 세금을 바치라고 시장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하게 매를 친 제주 목사의 예를 들며.....수구파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비행

다음 예는 위의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돈을 뺏는 일-비행> 보다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독립신문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여 국민 계몽의 목적을 쉽게 실현하고자 하였다...

: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독립신문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역설한 것은 조선 백성들의 ‘조선병(朝鮮病)’ 치유였다. 이러한 조선병으로는 곳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에 대한 맹목적 믿음, 허례허식, 지식인들의 수구적 태도 등을 언급하였다. 그중에서도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조선병은 바로 ‘불평하는 태도’와 ‘남에게 의존하여 살려는 마음’이었다...

위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문장에서 ‘계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이를 두 번째 단락의 전반적인 내용인 ‘조선병’과 연결할 수 있다. 배경지식으로써 이전부터 알고 있는 계몽의 의미와 글에 나와 있는 ‘조선병’의 사례를 연결하면 통합할 수 있다. 이때는 ‘계몽’의 의미를 신속히 떠올린 다음 연관이 있는 맥락(조선병)과 연결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ㄷ. 중요성

대용어가 있음을 아는 것은 곧 문장들이 특정한 주제를 말하기 위해 응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용어를 참조어와 연결함으로써 대용어와 참조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합하여 상황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용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참조어와 대용어에 관한 설명을 서로 통합하지 못하면 글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 글이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가(응집성)를 모르기 때문에 화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나. 교량 추론(bridging inference)

ㄱ. 개념

교량 추론은 말 그대로 교량처럼 떨어진 내용과 내용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 서로 끊어져 있는 듯한 내용과 내용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교량을 만들어 주는 추론이다. 그럼으로써 글이 유연하게 이어져서 내용과 내용 사이의 응집성이 높아진다.

ㄴ. 예

이를 다룬 논설에서는, 관리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세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돈을 뺏는 일이라며 비판하였다. 또 세금을 바치라고 시장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하게 매를 친 제주 목사의 예를 들며, 관리들의 이와 같은 횡포는 백성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부 비판적 논조는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당시의 수구파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비행이 신문에 폭로되어 독립신문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위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교량추론이 이루어진다.

독립신문의 정부 비판적 논조를 왜 국민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했을까?

이러한 정부 비판적 논조는 **(백성들의 마음과 요구를 대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 정부의 잘못은 국민의 고통을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의 잘못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때론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동조 또는 공감한다.

수구파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비행이 폭로되었을 때 왜 독립신문을 탄압하였을까?

당시의 수구파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비행이 신문에 폭로되어 **(입장이 난처해지자)** 독립신문을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비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다면 자신의 비행이 알려졌을 때의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고, 처벌을 받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이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ㄷ. 교량 추론에 의한 상황모델 구성

교량 추론이 필요한 ‘교량처럼 떨어진 내용과 내용’은 표현을 주의 깊게 읽고 연관 지식을 잘 탐색해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내용과 내용이 글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¹⁴⁾ 교량 추론이 글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경우이다.

운동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는 크게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구분된다. 지근섬유는 근육 내 ①산소 저장과 운반에 관여하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아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적근섬유라고 부르며, 상대적으로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 색을 띠는 속근섬유는 백근섬유라고 한다. 운동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지근섬유는 하나의 운동 신경에 10~180개 정도가 연결되고, 속근섬유는 300~800개 정도가 연결된다.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가 많을수록 근육의 수축력은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속근섬유로 구성된 운동단위가 훨씬 강한 수축력을 발생시킨다.

한편 근섬유들은 종류에 따라 수축력, 수축 속도,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②높은 피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속근섬유는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에 피로 저항력이 낮다.¹⁵⁾

①②

②에서 지근섬유는 왜 높은 피로 저항력을 가진 것인가? ①에서 지근섬유는 산소 저장과 운반에 관여하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근섬유는 자체 산소 공급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 시간에 배운 바, 즉

14) 대용어 참조 추론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숙련된 독자(잘 읽고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내용을 읽더라도 연관된 이전에 등장했던 표현이나 개념이 다시 나왔음을 잘 인식한다. 읽는 글로부터 응집성을 강하게 구성하는 독자일수록 잘 인식한다.

15)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편집), 교육과정평가원.

배경지식에 의하면 산소를 세포에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세포는 활발히 운동할 수 있다.

처음 ①에서 지근섬유가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다는 내용을 접했다.¹⁶⁾ ②에서 높은 피로 저항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전 단락 초반부에 있는 ①과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거리상, 의미상 떨어져 있다. ①과 ②는 배경지식으로부터 교량이 될 지식을 가져오는 교량추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다.

- ① 지근섬유는 산소 저장과 운반에 관여하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다.
교량추론 :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 ② 지근섬유는...높은 피로 저항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①을 읽은 후 운동신경에 근섬유가 연결된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①를 잊게 되면 ②를 읽을 때 연결추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위의 ①과 ②의 간격은 서로 연결할 수 없을 만큼 넓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와 같이 연결 추론은 연결해야 할 내용 사이의 거리상 거리나 의미상 거리 및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독자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르. 중요성

읽기이해 또는 상황모델 구성은 문장 하나하나의 개별적 의미를 함(mix)한다고 하기보다 융합(blend)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매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전의 내용을 참조하며 읽어야 한다. 대용어가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방법이라면 연결된 내용 사이를 메워주는 것이 연결 추론이다.

연결 추론은 대용어와 같이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지시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요구된다. 이런 경우 독자가 연결 추론을 해야 하는 지점을 스스로 찾아내어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 연결 추론이 필요할 때 해낼 수 있어야 글은 영성하게 포개어 놓거나 이어 놓은 자재 더미가 아니라 확실히 접합한 튼튼한 구조물을 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응집성이 있는 상황모델이다.

16) 사람에 따라 ①에서 단순히 지근섬유에 관한 한 가지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소의 저장과 운반 능력이 높다는 것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①을 읽을 때 지근섬유가 회복력이 강하다는 추론하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 ②에서 연결추론을 통해 추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론해 낸 정보를 확인한다

다. 상위목표 추론(Superordinate goal inference)

ㄱ. 개념

상위목표 추론이란 표현된 내용이 그것보다 상위의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추론하는 것이다.

ㄴ. 예

‘학생이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문장은 일상 경험으로부터 수업 중에 질문을 하려 했다는 상위목표를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하지 못하면 그 학생이 어떤 것에 대해 호기심, 의문, 의아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어갔다는 사실에 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것 역시 상황모델을 구성하는 데 실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문장이 횡단보도 앞에서 있는 학생에 관한 것이었다면 어린 학생이 길을 건너기 위해 운전자에게 자신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상위목표 추론을 위해서는 맥락을 통해 어떤 행위나 생각을 하는 정황을 잘 파악하여 추론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글에서 독립신문이 조선병을 치유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독립신문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역설한 것은 조선 백성들의 ‘조선병(朝鮮病)’ 치유였다. 이러한 조선병으로는 굶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에 대한 맹목적 믿음, 허례허식, 지식인들의 수구적 태도 등을 언급하였다. 그중에서도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조선병은 바로 ‘불평하는 태도’와 남에게 의존하여 살려는 마음’이었다. 이는 “조선은 전국 인민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남의 일같이 보고 도무지 상관들을 아니 하여 다만 불평하는 소리들만 하고 다닌다.”라거나, “먹고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는즉 그 사람이 어찌 자주 독립할 마음이 있으리오.”라는 논설의 대목에 잘 드러나 있다.

- ‘전국 인민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남의 일같이 보고 도무지 상관들을 아니 하여 다만 불평하는 소리들만 하고 다니므로’ 백성이 불평을 멈추고 나라의 흥망성쇠

에 관심을 갖고 국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 ‘먹고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어서 독립하려는 마음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주 독립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조선병을 치유하려는 두 노력을 보면서 독립신문이 백성의 의식을 개선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생각해 보자.

- 백성이 나라의 부흥과 독립을 바라고 노력하게 하려 한다.

- (연결추론에 의해) 나라의 부흥과 독립을 위해서 백성의 계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라. 인과원인 추론

ㄱ. 개념

이전에 발생한(읽은) 사건이 현재(지금 읽고 있는) 사건의 원인이라는 추론이다. 글 내부에 있는 원인과 결과의 구조는 부분적인 구조이거나 글 전체 구조일 수 있다. 두 내용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관련성을 발견하는 것보다 예민하며, 기억하기 쉽다. 글의 원인-결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특히 원인-결과 관계의 강도에 따라 글 이해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글 내부에 어떤 사안들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를 100% 이해한다면 글을 성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글 읽기이해 전략

글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상황모델을 구성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추론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추론을 통해 응집성 있는 상황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동안 유의해야 할 6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가. 언어에 집중한다.

사물을 보는 것의 기초 단계는 빛을 지각하는 것인 것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기초 단계는 언어가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개념을 떠올리게 하고 문법이 개념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할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단어와 문법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이 주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필요가 있다. 어휘력이 낮거나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유연하게 적용할 줄 모르는 것은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져온다. 문법이 전달하는 의미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문법 규칙을 잘 알아야 한다.

나. 연결하여 읽는다.

언어(단어/문법)가 자극하는 것을 독자가 보유한 배경지식과 연결시킨다. 언어 표현에 연결된 개념, 지식을 떠올린다. 떠올린 개념이나 지식을 글에 적용하여 글을 해석한다.

글과 지식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글과 글도 연결한다. 현재 읽고 있는 것을 이전의 것과 연결하여 읽는다. 기본적으로 읽기이해란 순차적으로 읽는 것을 이전에 읽었던 것과 통합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다. 때때로 질문한다.

수동적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도중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해결해야 할 목표를 갖고 이를 해결한다.

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간과하지 않는다. 또는 스스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글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면 그 답을 찾는다.

라. 잘 읽고 있는지 생각한다.

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있는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해 읽고 있는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계속 읽으면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므로 때때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다.

마. 이해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

읽은 것으로부터 얻은 상황 모델을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내용은 구조를 구성한다.

라.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한다.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한다. 최종적으로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내용을 삭제하여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요약한다.

★ 읽기이해 지도 Tip

1. 글을 선택한다.

가르칠 학생 또는 자녀의 수준, 필요사항에 맞게 적절한 주제, 난이도, 글 특성을 고려하여 글을 선택한다. 특별히 어떤 능력(특정 추론능력 또는 그 외) 또는 어떤 종류의 글에 약점을 보인다면 좋은 연습이 될 만한 글을 선택한다.

2. 읽기 전략을 설명한다.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할지를 설명한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한 번에 한 가지를 연습하도록 읽기 전략을 한 가지씩만 설명하고 실습하게 한다. 기본적인 능력부터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설명하게 될 읽기 전략 역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 기초 : 읽고 어떤 생각이 나는지 생각해 보기,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적해 보기
- 글이 중심으로 다루는 것(화제) 찾는 방법
- 읽으면서(글 읽기를 마치기 전에) 상황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3. 설명한 읽기 전략을 선택한 글에 적용하는 시범을 보인다.

4. 글에 적용하여 읽게 한다.

글을 모두 읽은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읽는 도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읽으려 하는지 질문한다. 학생은 질문을 받은 당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답한다. 간과하거나 이해를 포기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어떻게 전략을 적용하는지 도움을 준다.

5. 가르치는 사람의 개입을 조절한다.

가르치는 사람의 feedback을 점점 덜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어 원리 중심으로 가르치고 구체적인 방법과 문제 해결은 학생이 직접 하도록 한다.